



KB, 신한 위주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

은행 Weekly | 2026.1.12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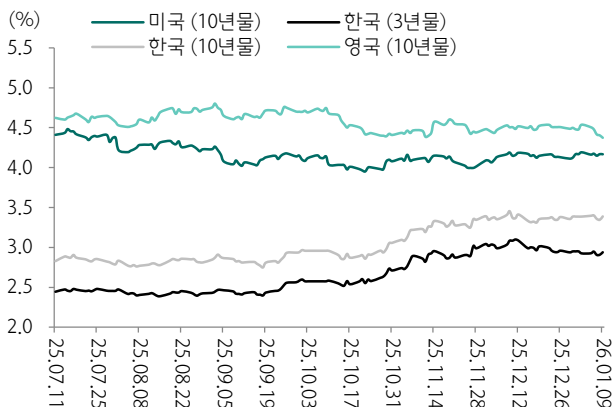
-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기업금융 대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 대면 영업을 일부 허용해주는 대신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특화 상품 제공 등 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하라는 것
- 국내 20개 은행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는 작년 9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111개가 줄어든 5,534개로 집계. 은행들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 5대 은행 요구불예금은 이달 6일 기준 646.5조원으로 급감. 지난해 4분기 이후 은행들이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정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리며 3%대 고금리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지만 새해 주가가 고공행진이 펼쳐지며 27.5조원이 몇새만에 이탈
- 5대 금융그룹들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 1,5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 KB 금융이 총 17조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신한지주 15조원, 하나금융 16조원, 우리금융 6.8조원 등 대규모 자금을 풀 계획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1월 9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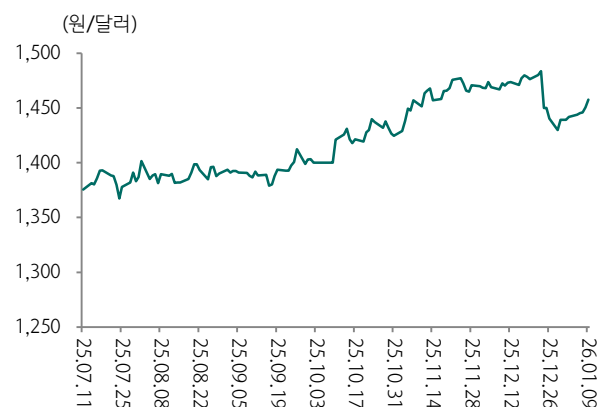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2025~)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72	30.5	5.6		3,790,229.8	6.4	10.9	27.0	91.1	-1,907.5	-421.7	1,084.8	175.7
은행	0.61	7.06	8.79	0.62	170,332.1	0.3	0.6	9.2	58.6	-83.7	-44.3	141.7	-39.2
KB 금융	0.76	8.26	9.42	0.72	48,293.1	2.7	1.7	12.2	52.7	-33.0	-7.7	70.1	-30.2
신한지주	0.65	8.19	8.83	0.64	37,771.5	1.6	0.6	8.1	63.3	11.1	-9.8	49.4	-50.7
우리금융	0.56	6.21	9.21	0.58	20,040.3	-2.7	-0.9	7.7	77.6	-25.1	-5.3	11.6	16.8
하나금융	0.59	6.48	9.03	0.61	25,856.5	-0.5	1.4	8.0	63.6	-8.4	-14.1	-3.1	9.9
기업은행	0.46	6.00	7.81	0.56	16,267.5	-1.7	-1.4	7.5	42.4	-16.7	-8.3	5.9	12.2
BNK 금융	0.44	5.93	7.50	0.52	4,810.7	-2.7	-0.1	8.6	48.0	-6.9	0.2	4.7	2.1
iM 금융	0.37	5.30	7.18	0.44	2,327.5	-5.4	1.8	8.1	77.1	-3.2	-0.3	0.4	1.8
JB 금융	0.76	6.63	12.05	1.02	4,661.7	-2.6	0.0	9.1	50.8	-1.4	1.0	2.6	-1.0
카카오뱅크	1.50	21.78	7.07	0.72	10,303.5	-1.4	0.5	-6.5	2.6	2.0	-0.1	-20.1	17.5
삼성카드	0.69	9.56	7.36	2.07	6,059.4	-3.7	-1.9	5.5	32.6	-7.2	-4.8	1.7	4.8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3% 상승에 그쳐 KOSPI 상승률 6.4% 대비 큰폭의 초과하락세가 계속 이어짐. 다만 이전주들과는 다르게 주간 단위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1,400억원대까지 다소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적. 금융당국은 1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 서민과 중저신용자의 금리 인하 및 자금공급 확대, 그리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확대와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로 5대 금융지주들이 지난해 4분기에 발표한 향후 5년간의 포용금융 추진 규모가 방안별로 상세하게 발표됨. 또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도 발표했는데 은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국민성장펀드 등의 생산적 금융 지원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금융 방안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등이었음.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혼조 양상.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 증가 폭은 부진했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당분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에 따라 2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다만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지연되면서 장기물은 하락세로 전환했음.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7%로 한주동안 3bp 하락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54%로 한주간 6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10년물과 3년물 모두 각각 3.39%와 2.94%로 전주 수준을 유지. 한편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 새해들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2월에 조기 총선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결국 원/달러 환율은 1,459.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4.3원 상승했음. 지난주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1.9조원과 840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들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1.1조원과 1,400억원 순매수. 외국인이 은행주를 주간 단위로 1,0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임
- 전주 특징주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주가가 각각 2.7%와 1.6% 상승해 은행 중 가장 강세를 보였음. 주가 상승의 배경은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 때문. 외국인은 지난주 KB금융과 신한지주를 각각 700억원과 500억원 순매수하면서 전체 은행주 순매수액 1,4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 특별한 이슈보다는 업종내 상대적 약세로 가격 매력에 부각된 점에 주로 기인한 듯. 15일 홍콩 ELS 2차 제재심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징금 불확실성 완화에 베풀린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유추됨. 반면 iM금융은 주가가 5.4%나 하락하면서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은행 12월 월중 NIM은 전월대비 상승해 4분기 분기 NIM은 예상보다 양호할 전망. 12월 NIM은 시중은행들은 평균 약 2bp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행들은 상승 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증시 활성화로 은행 예금이 축소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아직 NIM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따라서 4분기 은행 평균 NIM은 전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
- 금주 주요 이슈는 15일(목) 열리는 한은 금통위와 홍콩 ELS 2차 제재심. 1월 금통위는 반도체 주도의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되는데다 연말 정책대응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안정화되지는 못한 상황이며, 물가와 집값 또한 모두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동결 예측이 대다수.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홍콩 ELS 과징금도 15일 2차 제재심이 열리지만 결론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3월이나 되어야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4분기 실적에서 과징금을 인식할 가능성에 대해 은행별로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은행들이 과징금을 4분기 실적에 반영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음
- 4분기 실적 발표 예정일은 1/30(금) 하나금융, 2/5(목) 기업은행 신한지주 KB금융 JB금융, 2/6(금) 삼성카드 BNK금융 우리금융, 2/9(월) iM금융 등임. 일회성 판반비 증가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손실 확대 등으로 중소형은행들의 경우 실적이 기대치를 더 하회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 은행들은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예상.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지만 외국인들의 은행주 매수세 재유입과 과징금 불확실성 완화 기대, 상법개정안 1월 임시국회 처리 예정 등을 감안시 은행주 투자심리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CET 1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고, 과징금 불확실성과 규제 관련 우려가 주가에 많이 반영된 대형 은행지주사들 위주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178,000원), 하나금융(매수/TP 130,000원)

- KB금융은 4분기에도 강력한 경상 펀더멘털 확인 예상. 홍콩 ELS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우려는 완화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 우려만 해소될 경우 투자심리 큰폭 개선 예상. 외국인 매도가 둔화된데다 최근 유입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나금융은 3분기 CET 1 비율 하락으로 경쟁사와의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환율 하락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가도 결국 반응할 것으로 판단

Global Peer Table

(2026년 1월 9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KOSPI	1.72	30.5	5.6		3,790,229.8	6.4	10.9	27.0	91.1
은행	0.61	7.1	8.8	0.62	170,332.1	0.3	0.6	9.2	58.6
KB금융	0.76	8.3	9.4	0.72	48,293.1	2.7	1.7	12.2	52.7
신한지주	0.65	8.2	8.8	0.64	37,771.5	1.6	0.6	8.1	63.3
우리금융	0.56	6.2	9.2	0.58	20,040.3	-2.7	-0.9	7.7	77.6
하나금융	0.59	6.5	9.0	0.61	25,856.5	-0.5	1.4	8.0	63.6
기업은행	0.46	6.0	7.8	0.56	16,267.5	-1.7	-1.4	7.5	42.4
BNK금융	0.44	5.9	7.5	0.52	4,810.7	-2.7	-0.1	8.6	48.0
IM금융	0.37	5.3	7.2	0.44	2,327.5	-5.4	1.8	8.1	77.1
JB금융	0.76	6.6	12.1	1.02	4,661.7	-2.6	0.0	9.1	50.8
카카오뱅크	1.50	21.8	7.1	0.72	10,303.5	-1.4	0.5	-6.5	2.6
삼성카드	0.69	9.6	7.4	2.07	6,059.4	-3.7	-1.9	5.5	32.6

미국

S&P 500	5.40	26.1	18.9	4.68	61,884.9	1.6	1.9	3.7	1.8
은행	1.74	14.6	11.7	1.05	2,226.1	1.4	8.4	13.7	36.3
Wells Fargo	1.82	16.2	12.3	1.07	301.2	0.8	7.9	20.7	40.1
JPM	2.60	16.4	16.6	1.30	896.1	1.6	10.0	8.2	39.4
CITI	1.10	16.0	7.3	0.57	217.1	2.2	10.9	27.2	73.9
BOA	1.46	14.7	10.5	0.89	407.8	-0.2	4.3	12.8	25.4
US Bancorp	1.49	12.1	12.8	1.09	85.8	2.4	8.1	18.4	20.0
PNC	1.57	13.6	12.2	1.15	85.3	2.9	7.6	15.1	19.3
BB&T	1.07	12.8	8.6	0.98	64.8	1.8	5.6	15.7	21.2

중국

상해A주지수	1.52	16.0	9.6	1.41	65,228.1	3.8	5.7	5.2	33.9
은행	0.73	7.6	9.7	0.73	12,082.1	-3.0	-3.4	7.0	7.1
공상은행	0.70	7.7	9.3	0.72	2,555.1	-2.8	-3.1	7.4	12.8
건설은행	0.69	7.0	9.9	0.80	1,825.7	-2.4	-1.0	6.7	4.8
농업은행	0.94	9.5	9.8	0.64	2,517.8	-3.5	-6.4	12.4	41.8
중국은행	0.66	7.5	9.1	0.67	1,638.5	-4.2	-4.2	7.0	-3.5
교통은행	0.55	6.6	8.4	0.62	578.4	-2.5	-3.0	7.5	-6.9
초상은행	0.92	7.1	13.1	1.19	1,058.1	-1.9	-4.0	2.4	4.1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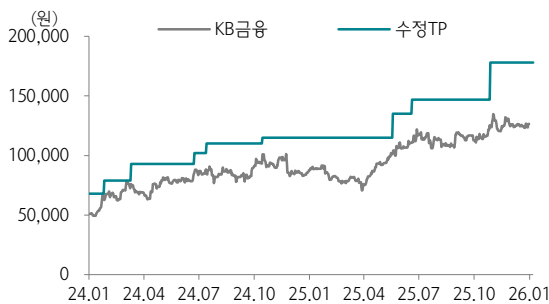
NIKKEI	2.47	20.6	11.6	3.87	890,515.9	3.2	2.6	7.0	35.7
은행	1.24	15.0	8.2	0.40	105,482.6	5.9	8.0	20.0	53.8
Mitsubishi UHF	1.40	13.8	10.6	0.59	31,354.5	6.0	6.3	11.9	44.8
Sumitomo Mitsui Financial	1.30	12.9	10.5	0.61	20,263.0	4.2	8.3	28.2	44.1
Mizuho	1.38	13.5	10.8	0.44	15,424.6	8.7	9.7	27.2	68.1
Sumitomo Mitsui Trust	1.06	11.7	9.3	0.40	3,493.8	3.7	8.0	17.5	40.0

유럽

MSCI Europe	2.35	17.3	12.7	1.56	14,868.5	2.3	5.4	6.9	21.6
은행	1.43	11.4	12.6	0.66	1,882.7	0.1	7.8	18.4	69.1
HSBC	1.58	11.3	12.8	0.76	205.1	0.2	11.8	19.2	51.2
Santander	1.51	11.5	13.2	0.77	152.6	0.0	7.6	20.1	126.2
BNP Paribas	0.82	8.6	9.7	0.41	97.4	6.4	12.5	15.4	54.9
Credit Agricole	0.75	8.1	9.6	0.26	53.5	-0.6	3.1	6.3	33.0
Deutsche	0.97	10.9	8.9	0.48	63.0	-2.2	3.0	8.2	92.4
Unicredit	1.66	10.7	16.7	1.23	110.1	-0.5	7.6	13.9	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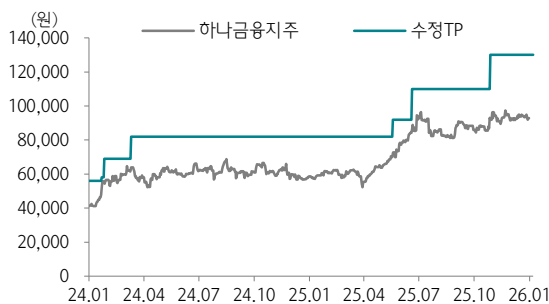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하나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30,0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1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3%	4.27%	0.00%	100%

* 기준일: 2026년 1월 9일